

2024. 3. 18.(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17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 부서: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북부병원 혁신기획실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4쪽

공공의료추진반	공공의료 추진반장	김병철	02-2133-9240
	시립병원 운영팀장	오재연	02-2133-9247
북부병원	관리부장	이연식	02-2036-0203
	혁신기획차장	강병주	02-2036-0233

서울시 북부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하루 9만원 간병비 절감

- 18일(월)부터 간호·간병서비스통합서비스 81→121병상 운영, 재활전문치료 특화
- 일반병동 4개 중 3개 전체 통합서비스 병상으로 운영, 시간·경제적 부담 완화
- 간호사·조무사 등 인력 대폭 확충, 병동 내 낙상방지센터 설치·24시간 환자모니터링
- 현재 7개 시립병원 총 1,364병상 간호간병서비스 운영... 공공의료서비스 기능 강화

서울시 북부병원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환자에게 간병·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오는 18일(월)부터 현재 81병상에서 121병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할 경우 일반 병동 대비 간병비가 하루 약 9만원 절감돼 시민들의 간병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병원에 소속된 간호사·간호조무사·병동지원인력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 서울시는 현재 7개 시립병원에서 1,324병상 규모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이번 북부병원 40병상 추가로 총 1,364병상으로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 현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중인 병원은 ▲서울의료원(404병상) ▲보라매병원(417병상) ▲동부병원(173병상) ▲북부병원(81병상) ▲서남병원(102병상) ▲어린이병원(112병상) ▲서북병원(35병상)이다.

<일반병동 4개 중 3개 전체 통합서비스 병상으로 운영, 시간·경제적 부담 완화>

□ 특히 서울시 북부병원은 노인환자나 재활중심의 아급성기(회복기) 환자가 많아 재활전문치료에 서비스를 특화, 장기적인 간병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울시 북부병원은 현재 6개 병동으로 운영 중이며 호스피스병동과 상급 병동을 제외한 일반 병동 4개 중 3개 병동 전체가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병동으로 운영된다. 환자들은 24시간 간호인력의 간호 및 간병서비스와 재활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서울시 북부병원은 지난 '16년 40병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해 41병상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 40병상을 추가하는 것이다.

□ 간병비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종합병원 6인실 입원비는 본인부담금 외에 사적 간병비가 평균 11만 2,197원(입원료 본인부담+사적 간병비, '23년 복지부 발표 기준) 들지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북부병원의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금만 2만 5,250원을 내면 돼 8만 6,947원의 부담이 덜어진다.

- 국회보고서(국회입법조사처, '24.2월)에 따르면 국민이 부담하는 간병비는 '08년 3조6,000억원에서 '18년 8조원 이상으로 늘었고 '25년에는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간병 도우미료 증가율 또한 2020년 2.7%에서 2022년 9.3%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간호사·조무사 등 인력 대폭 확충, 병동 내 낙상방지센터 설치·24시간 환자모니터링>

- 간호·간병 통합병상 수를 늘리면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도 보강했다. 각 병동에 낙상방지센터를 설치하고 환자모니터링 장치 등을 통해 24시간 환자 안전을 지킨다.
- 또 노인성질환 환자군의 특성을 고려해 건강보험공단 제시 인력배치 기준을 타 병원이 적용하는 '표준(병원급 환자 12명 당 1명)'보다 '상향(환자 10명 당 1명)' 적용해 더 많은 전문인력이 환자에게 간호와 간병, 보조 활동 등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립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급증하는 간병비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통해 공공병원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서울시 북부병원 전경사진 1부. 끝.

